



결혼의 의미와 변화



과 거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로 여겨졌던 결혼이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비혼(非婚)이나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통하여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결혼생활을 선택하고 경험한다는 점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사회제도임에 틀림없다.

사람들은 “왜 결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랑하니까’, ‘인생의 동반자를 얻기 위해’,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해’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 결혼생활은 이러한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많은 전문가들은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동기가 바르지 못하거나 결혼에 대해 잘못된 믿음이나 신화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당신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 당신은 어떠한 동기로 결혼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당신이 꿈꾸는 결혼생활은 어떠한가? 당신이 바라는 결혼생활의 모습은 현실적인가? 당신이 바라는 결혼생활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결혼의 의미와 동기, 잘못된 통념과 최근 결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숙고해보자.

주제어

결혼의 의미
결혼의 특징
결혼의 동기
결혼의 통념
만혼과 비혼

미리 생각해 보기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1.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2.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결혼의 의미

1) 결혼의 개념

학문적으로 결혼은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출생가족을 떠나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이다(김명자 외, 2009). 흔히 ‘제2의 탄생’이라 일컬어지는 결혼은 두 남녀가 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해왔던 원가족을 떠나 배우자와 더불어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란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성인남녀가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의 과정을 통해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정옥분 외, 2009). Olson 등(2014)은 결혼을 ‘정서적·육체적 친밀감, 다양한 과업,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정서적이고 법적인 공약’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Broderick(1992, 1993)이 지적한 결혼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결혼은 인구학적 사건(demographic event)이며 하나의 사회적 단위를 만들어낸다.
- 결혼은 두 가족과 사회관계망의 결합(joining of two families and social networks)이다.
- 결혼은 부부와 국가 간의 법적 계약(legal contract)이다.
- 결혼은 경제적인 결합(economic union)으로서 부부는 하나의 재정적 단위가 된다.
- 결혼은 가장 보편적인 성인의 동거형태(the most common living

arrangement)이다.

- 결혼은 대부분의 인간의 성적 활동 환경(context of most human sexual activity)이다.
- 결혼은 노동력 재생산의 단위(reproductive unit)이다.
- 결혼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단위(unit that socializes children)이다.
- 결혼은 친밀하고 공유하는 관계(intimate, sharing relationship)를 발전시키는 기회이다.

이와 같이 결혼이란 두 남녀의 육체적·정서적·경제적·사회적·법적 결합을 의미한다. 결혼은 두 성인남녀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이자 사회제도이며 합법적인 성적 욕구의 충족,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한 가계계승, 생식행위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충원, 정서적 안정과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 개인적 욕구충족과 이에 대한 법적 승인 및 사회적 인정을 획득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2) 결혼의 동기

일반적으로 인생의 여정을 홀로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혼할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한 정서적 관계를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합법적으로 충족하

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나아가 자녀를 갖기 위한 동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주요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기숙 외, 2001).

- (1) 사랑의 실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헌신, 책임감 등을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
- (2) 성적 욕구의 충족 성적 욕구는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도 충족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두 성인남녀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합법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서로 간의 성적 독점성과 다른 성적 관계에 대한 배타성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게 된다.
- (3) 정서적·경제적 안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획득하게 된다. 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 또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가계의 자산 증식과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통하여 물질적 안정을 취하게 된다.
- (4) 부모됨의 성취 자녀를 갖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 전통사회에서는 자녀 출산을 통해 가계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출산이라는 결혼의 동기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아직

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 출산은 결혼의 개인적 동기 외에, 사회구성원을 충원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 (5) 성인으로서의 신분 획득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 된 자를 성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남녀 만 18세로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7조). 또한 민법 제826조의 2에 의하면 미성년이 혼인을 할 경우에는 성년으로 인정하여 부모가 혼인한 미성년 자녀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역연령(曆年齡)을 기준으로 한 성년의 신분 인정 이상의 의미로 사회적 기준의 성인 신분 획득의 의미가 포함된다. 즉, 결혼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6) 사회적 기대의 부합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는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 최근 이러한 압력이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성인남녀가 결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인 통념으로 존재하며 이에 부합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의 일반적인 동기와는 달리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동기들도 있다. 또한 결혼 동기가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을 위한 것

이라든가 하는 도구적 동기일 때는 결혼 이후에 2차적인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부정적인 요인들이 결혼의 동기로 작용한 경우 결혼생활의 만족감이나 안정성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되고 이혼으로 끝이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결혼의 동기로는 혼전 임신, 순간적인 열정, 외로움에서의 도피, 신분 상승의 수단, 헤어진 사람에 대한 복수, 부모의 지나친 통제로부터의 도피,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 불행한 가정환경에서의 탈출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정옥분 외, 2009).

결혼의 동기와 관련하여 향후 원만하고 조화로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자신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와 결혼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중요한 욕구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상을 분명히 정립하고 혹시라도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3)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통념

통념이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개념이며,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결혼생활에 대한 통념에는 실제 기혼자 대다수의 결혼생활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대중매체를 통해 왜곡되거나 미화된 결혼생활의 장면을 통해 형성된 잘못된 통념들이 있다. 특히 결혼생활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대중매체에 여과망 없이 노출되어 잘못된 통념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며 결혼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훗날 실제 그들의 결혼생활에 갈

등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Olson과 Stephens(2001, 신희천 외 역, 2009)가 제시한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재정의하려면 다음과 같다.

- (1) ‘사랑이 있다면 결혼생활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흔히 낭만적 사랑으로 연애시절을 보낸 부부들은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결혼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겪는 부부들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사랑만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원가족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결혼에 대한 훈련조차 안 된 두 사람이 매일 상호작용하며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사랑의 열정이라는 요소는 점차 줄어들기 마련이고, 이러한 잘못된 통념에 집착할수록 상대방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절망하게 된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더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며,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며 결혼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2) ‘배우자는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대체로 결혼을 앞두고 연애 중인 커플은 상대방에게 강한 성적 에너지를 느끼고 완전히 흡린 상태에서 배우자가 멋진 성적 파트너, 가장 좋은 친구, 훌륭한 양육자, 헌신적인 가족부양자, 유능한 재정지원자, 완벽한 살림꾼, 아플 때 극진한 간병인의 역할 등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배우자는 가정에서 내 옆에만 머무

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에너지를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가족원에게 그리고 개인생활에 나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욕구란 매우 다양하고 끝이 없으며, 어떤 욕구는 자신도 확실하게 무엇이 결핍된 것인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통념에 집착할수록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더욱 높아지며 결혼생활에 대한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 욕구는 상대적인 것이며,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돌볼 필요가 있다.

- (3)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통념 중 하나이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리라는 잘못된 통념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가 이렇게만 바뀌면 나의 결혼생활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적 공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결혼 전 발견한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점도 결혼하여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좌절감을 더 경험하면서 관계는 더욱더 악화된다. 단언컨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더 빠르게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행복한 길이다.
- (4) ‘부부 간의 역할은 지속되고 결혼생활에 변화는 없다.’ 많은 연인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부부 둘만의 생활을 꿈꾸며 지금처럼 살면 행복한

결혼생활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사람의 인생주기처럼 형성에서 부부의 사망까지 계속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적응해 나가야 하는 발달과업이 존재한다. 또한 가족생태학적 관점에서 결혼생활은 여러 환경체계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산과 성장, 직업의 변화와 문제, 연로해 가는 부모님, 신체적 노화, 가족원의 죽음 등을 겪으며 끊임 없이 부부의 역할은 변화하며 융통적으로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 결혼이 불변이라는 통념을 믿는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이 통념의 정체를 바로 알고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결혼의 변화 추이

통계청이 전국 25,233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38,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1.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결혼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64.7%와 비교하면 불과 6년 만에 12.8%p 감소한 것이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국인의 절반이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15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통계청, 2016a)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결혼의 변화 추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혼인건수

2015년 한국의 혼인건수는 30만 2천 8백 건으로 전년도 30만 5천 5백 건에 비해 0.9%p가 감소했으며, 2003년(30만 2천 5백 건)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혼인 연령층의 혼인을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 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과 학업연장 등에 따른 만혼(晩婚)이나 자발적 독신선호의 비혼(非婚) 등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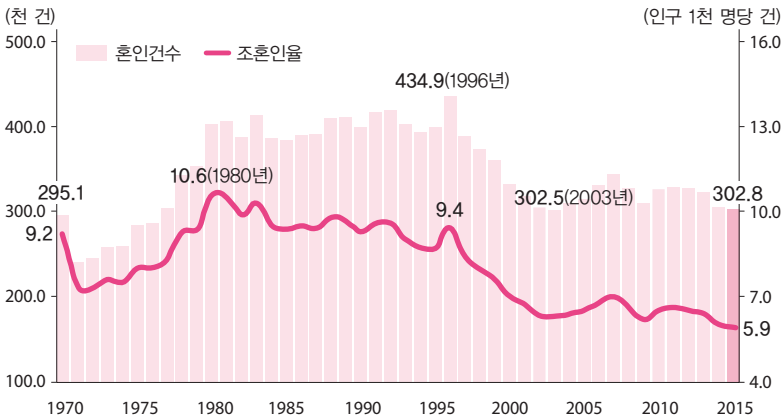


그림 1.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출처 : 통계청(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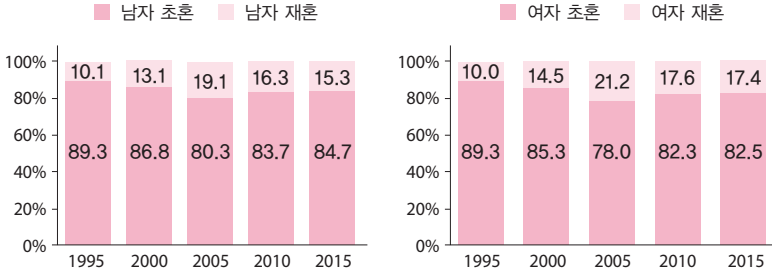


그림 1.2 혼인 종류별 구성비(1995~2015년)

출처 : 통계청(2016a).

2) 혼인형태

2015년 혼인형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8.7%, 남녀 모두 재혼은 11.5%를 차지하였다. 남자는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4.7%, 재혼이 15.3%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초혼이 82.5%, 재혼이 17.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남자의 경우 초혼은 1.0%p 증가, 재혼은 1.0%p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초혼은 0.2%p 증가하였으며 재혼은 0.2%p 감소한 것이다. 반면 남자가 재혼이고 여자가 초혼인 경우는 3.9%, 남자가 초혼이고 여자가 재혼인 경우는 6.0%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녀 모두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1.2 참조).

3) 혼인연령

혼인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초혼 남녀의 평균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0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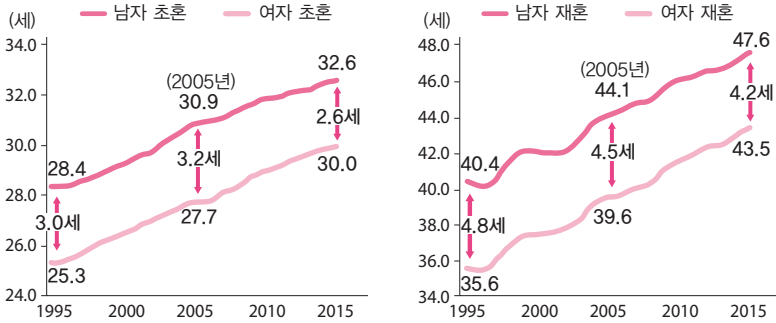


그림 1.3 혼인 종류별 추이(1995~2015년)

출처 : 통계청(2016a).

다. 이로써 여자 평균 초혼연령이 2015년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하였다.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남자는 1.7세, 여자는 2.3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남녀 간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6세로 2005년과 2006년(3.2세)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1.3 참조). 한편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7.6세, 여자 43.5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5세, 여자는 3.9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혼인연령의 차이

남녀 간 혼인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5년 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 부부는 전체 혼인의 16.3%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는 67.6%, 여자 연상 부부는 16.3%, 동갑 부부는 16.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동갑 부부 비중은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대비 0.1%p 증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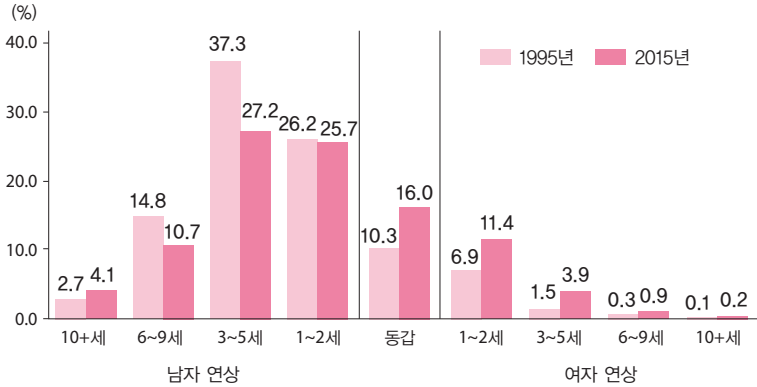


그림 1.4 초혼 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구성비(1995, 2015년)

출처 : 통계청(2016a).

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3~5세 연상(27.2%)이 가장 많았고, 남자 1~2세 연상(25.7%), 동갑(16.0%), 여자 1~2세 연상(1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전에 비해 남자 3~5세 연상은 10.1%p 감소하였고, 동갑과 여자 1~2세 연상은 각각 5.7%p,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참조). 이러한 현상은 집안의 가장은 남성이며 연령 면에서 남자가 더 뒷사람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력이 더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혼관

결혼관이란 한 개인이나 사회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견해나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한다.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가치관은 최

근 들어 급격히 변화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김승권 외,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60%와 미혼여성의 40%만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 결혼할 의향이 있는 미혼남성은 75%, 미혼여성은 65%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결혼할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원인은 미혼남녀 공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의 이유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생활의 비용 부담’(14.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9.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9.1%), ‘소득이 적어서’(7.3%), ‘실업 상태여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2.9%),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11.8%),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11.2%), ‘소득이 적어’(5.6%), ‘결혼생활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5.6%),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미혼남성은 경제적인 이유가 많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자아실현과 자유감의 이유로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11.5%, ‘하는 편이 좋다’는 37.7%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은 전체 49.2%로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응답은 6.0%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은 44.4%로 높아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최근의 결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30~40대 초 기혼여성에게서 결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는 미취학 자녀 돌봄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혼·별거·미혼모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결혼생활로 인하여 결혼에 대한 필요성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의 경우 신혼집 마련 문제이고, 여자의 경우는 육아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68.0%), 취업 문제(16.4%), 자유로운 독신의 삶 영위(12.0%)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반면 여자의 경우 육아 문제(38.0%), 자유로운 독신의 삶 영위(25.6%),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20.5%), 시댁과의 갈등(6.8%) 순이었다. 한편 초식남 여부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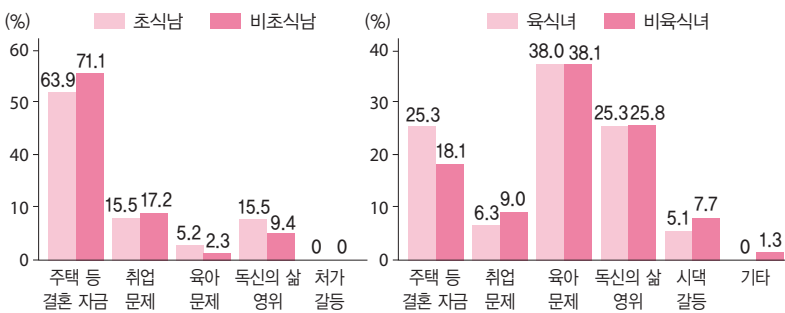


그림 15 성인 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3).

하여 분석한 결과, 초식남은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63.9%)는 더 낮은 반면 자유로운 독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유(15.5%)와 육아 문제 이유(5.2%)가 높았다. 또한 육식녀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육식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택 등 결혼 자금 문제(25.3%)가 더 높았고, 시댁과의 갈등(5.1%) 이유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참조).

초식남과 육식녀

초식남(草食男)이란 연애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외부 활동보다 그냥 방 안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남자를 의미한다. 육식녀(肉食女)는 연애에 적극적이고 고백받기보다 고백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여자를 의미한다. 일본의 파트너에이전트(주)의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40대 남녀 중 초식남 성향을 나타내는 남자는 71.5%에 이르고, 육식녀 성향을 나타내는 여자는 37.7%이다. 일본은 1990년대 장기 불황 이후 연애를 기피하는 초식남이 늘어나면서 비혼과 만혼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 중 초식남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43.1%이며 미혼여성 중 33.8%가 육식녀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한국 남성의 초식남화의 이유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요인, 유약하면서 자기애가 강한 남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육식녀화의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권신장, 경제적 진출로 인한 자신감 증진 등으로 분석하였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3)

요컨대 최근 들어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혼화와 비혼화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족문화와 직장문화 역시 전통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혼남녀와 기혼여성 모두 정부와 직장의 결혼·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만혼화와 비혼화 수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정, 주거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며,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의 조성이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워크시트 1

본문 제1장의 '결혼의 동기'를 참고하여 각각의 결혼 동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서술해 보세요.

1. 사랑의 실현 _____

2. 성적 욕구의 충족 _____

3. 정서적·경제적 안정 _____

4. 부모됨의 성취 _____

5. 성인으로서의 신분 획득 _____

6. 사회적 기대의 부합 _____

본문 제1장의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참고하여 각각의 통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서술하세요. 향후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해야 할 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보세요.

1. 사랑이 있다면 결혼생활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나의 생각 _____

실천 계획 _____

2. 배우자는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나의 생각 _____

실천 계획 _____

3.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

나의 생각 _____

실천 계획 _____

4. 부부 간의 역할은 지속되고 결혼생활에 변화는 없다.

나의 생각 _____

실천 계획 _____



토론 및 함께 생각해 보기

1. 결혼의 동기 중에서 혹시 당신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왜 공감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2. 혹시 당신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 부정적인 동기가 있는
지 고민해 보세요.
3.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통념 중에서 당신이 갖고 있던 잘못
된 통념들은 무엇인지, 왜 그러한 통념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
해 토론해 보세요.
4. 최근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20~30대
의 만혼과 비혼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5. 혼인연령의 차이와 관련하여 남녀 간에 10년 이상 차이가 나
는 커플관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